

첼시, 웨스트햄에 2-1 역전승...맨시티 제치고 EPL 4위 탈환

등록 2025.02.04 10:55:44



[런던=AP/뉴시스] 첼시FC의 콜 팔머(왼쪽)가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후반 28분 완 비사카의 자책골을 유도하고 있다. 첼시가 이 골로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4위로 올라섰다. 2025.02.04.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런던 дер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위 자리를 되찾았다.

첼시는 4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2024~2025시즌 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를 거둔 첼시는 12승7무5패(승점 43)로 맨체스터 시티(승점 41)를 제치고 리그 4위로 복귀했다.

패배한 웨스트햄은 7승6무11패(승점 27)로 리그 15위에 머물렀다.

웨스트햄은 전반 42분에 나온 제로드 보언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후반 19분 페드루 네투가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바로 잡았다.

이후 후반 29분 역전골까지 터트렸다.

첼시의 콜 팔머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시도한 크로스가 웨스트햄 측면 수비수 애런 완 비사카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로 빨려 들어갔다.

해당 득점은 완 비사카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